



## 대전 인구 감소 가속화... 대안 마련 절실

### 육동일 교수, 대전시의 인구활력 등 정책 마련 강조

대전시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대전시의 인구활력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육동일 충남대 지리학과 교수에 따르면 대전시의 인구는 올해 들어 감소세가 뚜렷이 진행돼 '150만 붕괴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세종과 충남, 충북은 인구 증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시스템' 집계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대전의 인구는 150만 8,137명으로 한달동안 1,450명 감소했다. 2014년 7월 대전의 주민등록인구는 153만 6,349명으로 최고였지만, 2014년 8월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즉 8월에 153만 6,286명으로 감소한 이후 4년째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 한 해 동안 1만 3천여명이 줄어 -0.85%로 역대 최고 감소율을 기록한 동시에 같은 기간 세종시로 순유출인구는 2만 2,104명으로 전년대비 인구감소분보다 많았다. 세종시 빨대효과로 인한 불락을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육 교수는 "더욱이 대전은 젊은 층이 취업기회가 많은 수도권 등으로 지속 유출되고 있다. 대졸자 역대 취업률(2014년은 39.6%, 구인배율(신규구인인원수/신규구직자수 2015년)은 0.45배로 각각 전국 평균(47.9%, 0.59배)을 하회하고 있으며 지방 5대 광역시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전은 여전히 미래 일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지 못한 결과"라며 "생산활동가능 인구세대인 30~40대 중심의 대전 인구유출은 자연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대전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30~40대 학부모들이 일자리와 자녀교육을 위해 수도권과 세종시를 향해 대전을 떠난다면 대전의 미래 도시경쟁력과 지역경제는 붕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대전시의 인구가 감소하느냐는 대전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육 교수는 "그 동안 대전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계획(싸이언스 컴플렉스 조성)·주정, 호남선 KTX 서대전역 미경유 대책 부재, 대전지하철 2호선 건설방식과 노선의 잦은 변경에 따른 공감대 미형성 및 조기 착공의 지연, 옛 충남도청사 재개발 및 원도심 활성화의 지지부진, 갑천천수역개발과 도시공원의 민간특례 사업에서의 민간 갈등, 용산동 현대아울렛 건설 취소, 시출연 산하기관 기관장의 선임문제와 기관내 인사비리, 대전의 '사용 후 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정책의 부재 그리고 고도정수시설 민자계획의 강행과 취소, 대전시립의료원과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의 무산 등의 문제들이 이르기까지 대전시가 보여준 대부분의 사업과 정책들은 장기적, 종합적, 일관적, 시민소통적, 전략적 차원에서 한결같은 부재와 미비로 정책상의 한계점을 그대로 드러낸 채, 시장의 난맥상과 함께 시민들의 신뢰와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면서 "결국 정책불신과 시민불안만을 초래한 결과 도시의 침체와 쇠퇴문제를 가중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시의 인구감소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초래되었다. 즉 인구감소의 문제를 초래한 더 근본적인 위기는 도시 정체성의 위기,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 도시발전의 전략과 정책부재의 위기, 그리고 시민들의 자신감 상실의 위기까지 겹치면서 대전시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인구감소의 문제는 인구관리방안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도시집체의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종합적, 체계적, 전략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육 교수는 지적했다.

육 교수는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대전의 정체성(Identity)을 되찾아 대전미

레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대전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 교수는 "그 동안 대전발전의 비전과 목표는 오랫동안 인구 200만 내지 170만을 염두에 두고 마련됐으면 최근에 와서 150만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이를 전제로 한 대전발전의 장기계획 및 실행계획들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대전시와 세종시 그리고 충남·북은 상생발전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대덕특구와 과학벨트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대학의 발전에 기여토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려면 대덕특구는 중앙정부만의 주도에서 탈피해서 중앙정부, 지역의 대학, 기업, 대전시와 유기적인 가버너스 협력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공동 결정 (Co-decis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2025년 쯤에는 시민 30%가 과학관련 직업을 소유하고, 대전인재 30%를 육성해서 과학도시의 주인이 됨으로서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과학기술도시로 진입해야 한다. 대전의 경제는 대기업에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과학특구와 과학벨트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육 교수는 주장했다.

또한, "대전시가 과학도시임을 대내외에 재천명하고, 대전시민들이 하나되어 꿈과 희망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대전엑스포 개최 30년 만에 '대전 엑스포 2023'을 유치하는 것"이라며 "2020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는 '두바이 엑스포'에 이어 개최가 가능하므로 서둘러 '2023 대전엑스포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쟁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북 도발땀 즉각수장시킬 것"

대한민국 공군과 육군이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 4일 새벽 미사일 합동 실사격훈련을 실시한데 이어 해군이 5일 동해에서 함포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은 1함대사령부 주관으로 2500급 신형 호위함(FFG) 강원함과 1000급 토공함(PCC), 400급 유도탄고속함(PKG), 130급 고속정(PKM) 등이 참가해 대공·대함 함포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훈련에 참가한 최영찬 13전투전대장은 "이번 훈련은 적의 해상도발 시 우리 군의 즉응태세를 점검하고 적 도발에 대한 응징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적의 수상·수중 어디서든 도발한다면 즉각 격침시켜 그 자리에 수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또 6일부터 9일까지 남해에서 해상전투단급 훈련을 한다. 3함대사령부가 주관하는 남해 해상훈련에는 2500급 신형 호위함인 전복함과 광주함 등 수상함 10여척, 잠수함, P-3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헬기 등이 참가한다. F-15K 등 공군 전술기, CN-235 수송기, 육군 전담감시대 등도 참여해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차단 작전, 사격훈련, 국가 중요시설 방호훈련 등을 실시한다.

한편 염현성 해군참모총장은 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해군 세계 10대 과학기술도시로 진입해야 한다. 대전의 경제는 대기업에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과학특구와 과학벨트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육 교수는 주장했다.

이어 염 총장은 "북한의 위협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대전엑스포 개최 30년 만에 '대전 엑스포 2023'을 유치하는 것"이라며 "2020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는 '두바이 엑스포'에 이어 개최가 가능하므로 서둘러 '2023 대전엑스포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쟁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원봉사자, 성공 개최 앞장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5일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을 다짐하는 '자원봉사자 교육 및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열흘 '황금연휴' 확정

####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 "국민 휴식·내수 진작 기회로"

올해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

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또한 산업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어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

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달라. 일용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관리, 안전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도 꼼꼼히 추진해 달라"며 "올해 가뭄과 폭염 등 채소류 가격이 높고 과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긴 연휴 기간 중 교통,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정환기자

## 함께하는 흥성! 신뢰받는 의회!

군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흥성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충남교육청 오성고 부지 매입 특혜 의혹

## 김종문 의원, 송유관 매설된 2억8200만원 땅지 7억7000만원에 매입

충남교육청이 천안 오성고 부지(사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률 위반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 도교육청에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성고 운동장과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2015년 5171㎡의 땅을 17억 46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2015년 매입한 오성고 부지 일부 필지는 재산 가치와 활용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도교육청이 매입한 5개 필지 중 3개 필지는 송유관 매설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활용하려면 10억 원 이상을 들여 옹벽을 쌓고 축대를 쌓아야 하는 등 이중, 삼중 예산이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또 있다. 5개 필지 중 송유관이 매설된 2개 필지는 경매에서 1년간 유찰되다가 청구가 37%인 2억 8200만원에 낙찰된 땅이다. 이러한 땅을 도교육청은 7억 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토지의 가치가 적정한지, 환경에 영향을 없는지 검토한 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했다"며 "5개 필지 중 두 필지는 모두 길이 닿을 수가 없는 땅이다. 건축행위가 안 되는 땅을 4억 9000만원의 차액을 주고 매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 "도교육청은 이런 땅을 두 고 궁여지책으로 '학교 숲 조성사

업'에 응모하는 등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 등이 공유재산법의 사권 소멸을 조작하면서 법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매 2개 필지에 4배의 특혜 제공을 위해 인접한 3개 필지를 9억8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감정이 평균 매입 일가는 오성고 부지 매입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감정평가업체 3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 평균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정복기자는 "도교육청은 '학교 숲 조성사'를 통해 매입한 땅을 7억 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매 2개 필지'에 4배의 특혜 제공을 위해 인접한 3개 필지를 9억 8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감정이 평균 매입 일가는 오성고 부지 매입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감정평가업체 3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 평균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정복기자는 "도교육청은 '학교 숲 조성사'를 통해 매입한 땅을 7억 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매 2개 필지'에 4배의 특혜 제공을 위해 인접한 3개 필지를 9억 8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감정이 평균 매입 일가는 오성고 부지 매입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감정평가업체 3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 평균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해야 한다. 기획부동산과 공무원의 공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천안오성고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이 부족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학교부지(5,171㎡)를 17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2015년 9월 21일 계약 체결해 매입하게 됐다"면서 "현재 매입한 부지를 활용하여 운동장(농구장, 풋살경기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부지를 교육청에서 시세 가격보다 싸게 매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경매에 의해서 취득한 것은 알 수 없다. 시세 가격 등에 대하여는 공부상 확인이 수 있었으며, 부지 매입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감정평가업체 3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 평균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정복기자는 "도교육청은 '학교 숲 조성사'를 통해 매입한 땅을 7억 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매 2개 필지'에 4배의 특혜 제공을 위해 인접한 3개 필지를 9억 8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감정이 평균 매입 일가는 오성고 부지 매입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감정평가업체 3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 평균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정복기자는 "도교육청은 '학교 숲 조성사'를 통해 매입한 땅을 7억 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매 2개 필지'에 4배의 특혜 제공을 위해 인접한 3개 필지를 9억 8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감정이 평균 매입 일가는 오성고 부지 매입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감정평가업체 3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 평균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정복기자는 "도교육청은 '학교 숲 조성사'를 통해 매입한 땅을 7억 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매 2개 필지'에 4배의 특혜 제공을 위해 인접한 3개 필지를 9억 8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감정이 평균 매입 일가는 오성고 부지 매입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감정평가업체 3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 평균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정복기자는 "도교육청은 '학교 숲 조성사'를 통해 매입한 땅을 7억 7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매 2개 필지'에 4배의 특혜 제공을 위해 인접한 3개 필지를 9억 8000만원에 추가 매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감정이 평균 매입 일가는 오성고 부지 매입비는 관련 법령에 의해 감정평가업체 3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산술 평균 금액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 청양군의회, 의원간담회 개최

##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는 지난 5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의견소통의 시간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노인요양원 증축 및 대수선 계획 ▲제56회 군민의 날 기념 및 제19회 집합문화제 추진계획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는 지난 5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의견소통의 시간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으로,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노인요양원 증축 및 대수선 계획 ▲제56회 군민의 날 기념 및 제19회 집합문화제 추진계획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

# 홍성군의회 산자부 방문,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 촉구

## 김덕배 의장과 의원들, 산자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지역민심 전달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방문해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덕배 의장과 의원들은 5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를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내포신도시 주거 밀집 지역에 SRF 열병합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어 홍성과 예산 주민 모두가 폐비닐, 폐플라스틱

연소로 인한 독성물질 배출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지역민심을 전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를 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만큼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 나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덕배 의장과 의원

들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숲 질 권리를 위해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주민의 뜻을 대변해 군민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문제와 관련해 사태 초기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6월 제24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중단'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내포신도시 쓰레기발전소 반대위원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반대 행보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그밖에 사업시행사인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와 만나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SRF 연료 대신 LNG 연료 사용을 요청했으며 군의회 이상근 의원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건설 중단과 홍성-예산 공동 대응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홍성=김정환기자

# 국민고충 처리제도 발전

## 방안 모색에 黨政 '힘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팀장 소병훈 의원)은 민생현안해결과 국민고충처리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관련분야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민생현안 및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관계 강화방안'과 '국가 옴부즈만의 역할 강화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와 국회가 협력해 국민권의 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민생현안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확대방안도 토론회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이윤리 사회적 과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의 효율적 해결 방안과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지방옴부즈만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옴부즈만의 확대·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2017년도 제2회 추경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제4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는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경에 산안 및 충청산업문화재단 행정협의회 규약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환경 등에 대비한 부품 구입과 신규사업 추진 시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6천만원이 늘어난 5,410억 9천여 만원(0.85%)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호수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뭄근대적 농업용수개발 사업 5억원, 마을공방 조성사업 4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세종=이정복기자



# 서산시의회, 대산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촉구

## 대산지역 대한정부의 적극적 역할 촉구 나서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가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는 대산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대산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대산인안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발표된 미국 나사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한미 대기질 공동연구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서산시 대산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국가 통계량보다 3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 중 벤젠, 부타디엔과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어 작업장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대산지역은 하루에 약 30만 톤의 공업용수를 사용하는데 이 물이 수증기로 변해 대기 또는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 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는 각각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시행해오고 있는 반면 대산지역은 변변한 환경영향조사조차 없이 방치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묵묵히 참고 견뎌 온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산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대산인안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토양과 수질, 대기질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산=김정환기자

# 박범계 의원, 대전 '4차산업혁명특별시' 기반 마련

## 2018년 대전 국비예산 확보 심혈 기울인 결과



박범계(대전 서구 을·사진) 의원이 2018년 대전 국비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도시철도2호선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유성 복합환승센터 조성, 4차산업혁명특별시 건설 기반 마련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세부 예산내역으로는 대전 발전의 골간이 될 '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 설계비 30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설계비 10억을 반영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특별시 건설을 위한 기반이 될 '대덕특구 융복합연구센터' 조성 설계비 2억을 반영함으로써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발전할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예산 25억도 확보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보수 4억 5천, '평송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8

억 6천 1백만 원 확보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월평도서관 건립 30억, 갈매2동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 등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숙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박범계 의원은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 대전 공약인 '어린이재활 병원 및 대안의료원' 건립과 '충남도청 개발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전이 동북아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천안시서북구선관위, 불법 당원모집 집중 단속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희)는 내년도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입당원서 징구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공문을 통한 당

원모집과 관련한 범규안내와 함께 현지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를 방문해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 정당의 당원가입에 따라 대가 지급 및 당비대납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선거구 민이 입당할 때 당비를 대납하거나 사표를 고용해서 입당원서 징구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입후

보예정자 등이 당원을 모집한 후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입당원서 징구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 및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내 타인의 당비를 내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1년간 당원자격이 정지되고,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내년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천안=구본성기자

# 민주당·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

## 500여 시민과 '격정의 2시간' 성황리 개최



지난 4일 대전 서구 월평동 통계교육원에서 열린 '민주당·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설명회'가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박 위원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의 염원으로 지금의 정부가 탄생한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성공한 정부를 이루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탄생 4개월 차, 높은 지지율로 고공행진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전시도 시장기조를 새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 현안 사업 등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을 시민의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

의 탄생 배경과 철학, 계획을 설명 하려고 순회 강연 중"이라며 "대전은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대전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됐다"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하여 조승래 국회의원, 강래구 동구 지역위원장, 송환수 중구 지역위원장, 박종래 대덕구 지역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중태 서구청장, 시구의원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민주연구원에 김성주 부원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추가 당원 교육 등을 통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 지지를 계속 '전과'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 “동구청장 도전... 재선의원 경험 동구발전에 쏟겠다”

## 안필응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안필응(바른정당·대전 동구3)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은 재선의원이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항상 그에게 신뢰를 보낸다. 지역에서는 보기드물게 벤처CEO 출신으로서 회사 운영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영과 그동안의 쌓은 정치 경험으로 선진 의정을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지금 안 의원은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정치로 향해 한 걸음 나아갈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의 쌓은 정치 경험을 지역사회발전에 더 기여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내년엔 대전 동구청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의 쌓은 정치경험을 통해 동구가 낙후된 도시가 아닌 반드시 대전 중심도시로 옛 영광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대전투데이에는 안필응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성과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각해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의원은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지요.

전반기 2년간 저는 복지환경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실에 있는 날은 회기 때를 제외하고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의회 직원분들도 제 얼굴을 알아보질 것 같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동구 구민께서 저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시의원으로 뽑아주셨기에 현장에서 모든일을 처리했습니다.

요즘 SNS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그보다 직접 주민을 만나고 특히 소외계층과 지역 어르신들의 아프고 시린 부분을 듣고 찾아 시에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현장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남은 의정 활동이 있다면?

먼저 작년 3월에 용전동 가스폭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복지환경위원장이었던 저는 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몇날 몇일을 현장에 나가 이재민을 만나고 지원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성금모금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사고의 조치 사항 등에서 아쉬웠던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한 개선방안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에 대한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

는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전국최초 재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재민분들의 아픔을 직접 느끼고 행정지원이 우리의 상식도 못쫓아가는 걸 보며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그때의 의정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방의회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한 요건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요. 보통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지방분권 확립 등이 많이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이보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지방의원의 의정역량강화라 생각합니다.

아직 지방의원을 희망하는 정치신인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신인의 층이 두터워져 훌륭한 후보자들이 많이 나와 경쟁이 강화된다면 지방의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빠르게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바른정당 동구 당협위원장으로 이런 의미로 동구의 발전을 위해 정치신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향후 대전 동구청장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데요.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올해 시의원분들 중 저처럼 다이나믹하게 정치 활동을 하신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1월 저는 충청권 광역으로는 처음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습

니다.

촛불민심 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혁신하는 보수”의 모습을 지키고 새롭게 태어나는 보수의 주춧돌 한 개라도 나쁘겠다는 마음과 깨끗하고 따뜻한 가치로 대전시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동구민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8년간 시의원으로 시정을 경험하였기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동구의 발전과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복지구 구현을 위해 동구청장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드릴 말씀은.

정치는 신의입니다. 또한 초심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로 선출하신 것은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민이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나와 가족, 이웃이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원하는 마음은 세월이 가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것이 초심이고 어느 위치에 있건 그 마음을 가지고 약속한 바를 지키는 것이 신의입니다.

저는 초심과 신의의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해왔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주민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듣고 행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에 빠르고 경제에 강한 안필응,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평안과 건강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제7대 대전시의회가 개원 3년을 맞았는데요. 소회 한 말씀 해 주시죠.

7대에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시민을 위한 행정은 단기 실적이나 장기적인 밑그림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고 많은 이는 많큼 많은 대안제시와 시정에 대한 견제·지원을 할 수 있기에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 여러 시민분들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시에 정책제안 제시하려 노력하는 값진 시간을 보냈고 봉사할 수 있다는 마음에 행복했습니다.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고 특히 현장의정에 힘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해 주시죠.

말씀대로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고 끈질긴 노력을 통해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기양국민체육센터(142억), 기양동부선연결도로(459억), 중부소방서이전(208억), 용전공원조성(346억), 성남순환형임대주택(98억), 용전지자인거리조성(57억)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요 이에 대전21개 시민단체선정 우수시의원 선정과 전국신문의날 광역의원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지역의 현안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

지. 대전시에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트램 및 4차산업특별시 등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원도심 리모델링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지역에 주로 혜택이 가는 새로운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김부겸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전의 현안은 균형발전입니다. 균형이란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곳을 더 채웠을 때 균형이 잡혔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특별시, 대형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원도심을 우선 배려하는 정책이야말로 최고의 대전발전 전략이고 해결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벤처CEO 출신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정치발전은 많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벤처사업가로 회사를 운영하며 행정기관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규제와 행정속도 등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지방자치시대에 지자체 장의 마인드와 리더십이 일반 주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운영의 경험을 살려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또한 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





# 공주시 7725억원 추경예산 확정

### 서민층 경제활성화·채무전액상환 예산 확정... 구)공주의료원 리모델링·활용예산은 삭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채무전액 상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21일 공주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를 통과했으나, 다음날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수정안이 발의돼 ▲공주행정역사관 설치 사업비 10억 2백만원 ▲공

주역사인물관 건립비 8억 9천만원 ▲평생학습관 운영비 3억 3천만원 등 구)공주의료원 리모델링 예산 22억 2천 2백만원과 ▲노후공동주택 가스시설개선사업 ▲청년창업카페 설치예산 등 총 23건에 24억 6천 7백만원이 삭감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추경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의 일자리 사업과 채무상환에 31억원을 반영해 채무 제로화를 달

성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재원 보강으로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구)공주의료원의 리모델링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및 시민들의 문화 공간 제공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구)공주의료원 리모델링 활용 사업 예산이 삭감돼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공주시가 평생교육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설치계획

이 구)공주의료원 활용 예산의 삭감으로 표류될 위기에 처했으며, 구)공주의료원에 설치 계획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행정역사관, 역사인물관, 케릭터브랜드 홍보관 등도 추진이 불투명하게 돼 구)공주의료원 활성화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이번 의회의 추경예산 삭감 결정에 큰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앞으로의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 천안시 '빛너울 청년야시장' 8일 개장

### 11월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 6시~11시 남산중앙시장 야시장 축제 열려

천안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일 남산중앙시장에서 '빛너울 청년야시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남산중앙시장 '빛너울 청년야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남산중앙시장상인회(회장 김준수)와 문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주관한다.

남산중앙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야시장은 9월~11월 매주 금·토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평소 시장에서 맛보기 어려운 다채로운 먹거리와 흥겨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석연휴(10월6-7일 휴장)

야시장 이용 고객들을 위해 저녁 8시부터는 ▲비보이 공연 ▲디제잉 공연 ▲방승댄스 ▲풍기타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이어지고 화려한 불꽃쇼까지 펼쳐져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다.

앞서 1일에는 야시장을 임시 개장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기간 동안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야시장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야시장부터 재료가 부족해 야시장에 대한 인기를 실감해 했다.

남산중앙시장 문광형사업단 관계자는 "임시개장시 재료부족과 조기 폐장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상개장부터는 판매자분들과 협의를 통해 충분한 준비를 거쳐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남동 지역경제과장은 "1918년 개설된 남산중앙시장은 현재 천안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계기로 남산중앙시장이 중부권 대표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인회 및 사업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산중앙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17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공모사업 대상시장으로 선정돼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갖춘 특색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천안=구본성기자

# “착한 아이디어 모여라” KT&G ‘청년창업’에 30억 지원

### 20일까지 1기 예비 청년창업가 모집... 14주간 집중 지원 프로그램 가동

KT&G(사장 백복인)가 국가적 과제인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30억 규모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KT&G는 5일 이상화 KT&G 지속경영본부장,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대표상임이사, 김정현 언더독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혁신파크에서 'KT&G 상상 스타트업 캠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T&G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 'KT&G

상상 스타트업 캠프'는 특히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벤처'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KT&G는 1기 참가자를 오는 9월 20일까지 홈페이지(www.kngstartupcamp.com)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9월 13일과 15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선발된 예비 창업자들은 10월부터 내년 초까지 14주간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참가자에게는 ·현직 창업자들의 1:1 전담 코칭과 분야별 전문 멘토링, 실전 사회혁신 스타트업 업무 시스템 등이 제공된다. KT&G 상상마당 홀대에 교육공간이 마련되며, 업계 전문가·VC(벤처캐피탈)와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우수팀에게는 팀별 최대 3000만원의 초기 사업 자금 지급과 함께 해외 벤치마킹 기회, 사무실 입주비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KT&G는 향후 청년창업 지원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용 공간도 확보해 중장기적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도로주행시험 응시생 안전운전능력 향상 위한 반복안내 서비스 제공

### 시험코스별 위험구간 등 반복 설명으로 인정한 시험환경 조성

도로교통공단(이사장 대평 정순도)은 9월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생의 안전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도로주행시험 전에 전문 시험관이 시험코스별 위험구간, 많이 감점되는 운전습관 등에 대해 응시생에게 반복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근 운전면허본부장은 "도로주행시험 응시생 가운데 운전능력은 있으나 단순한 실수로 운전면허시험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고객 만족도 향

상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도로주행시험 전에 반복 안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대상으로 도로주행시험 응시생들의 감점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핸들조작 미숙(8%), 교차로 진입통행 위반(7%), 엔진진지(6%), 30m전 미신호(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응시생들은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긴장감 해소는 물론 위험구간을 사전에 사진으로 반복 설명해 주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시험환경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근 본부장은 "앞으로도 면허시험장 도로환경에 맞는 표준 안내 매뉴얼 제작, 기능시험장 시험코스 도보체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운전면허시험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응시생의 안전운전능력을 향상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청양고추구기자축제위원회 '명품청양고추' 판매가격 결정



청양고추구기자축제위원회는 지난 4일 고추 가격결정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양장남 시세와 인근지역, 전국 동향

기준)은 1만6000원, 상품은 1만2500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올해도 축제 현장에서 견고추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한해 선착순 4000포 한정으로 청양사랑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상품권은 견고추 6kg당 또는 고춧가루 4kg당 1만원권을 증정한다.

고추가격결정소위원회 관계자는 "생산자와 축제를 방문하는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결정에 신중을 기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량 매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양 고추 구매를 위해 찾아주시는 고객을 위해 최고의 품질 좋은 고추를 엄선해 명품청양고추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 서대전농협 농업인 고충해결 '농협 이동상담실' 열려



서대전농협(조합장 최시규)은 지난달 30일 농업인 권리의식 제고와 법률·소비자 분야에 대한 각종 고민 해결을 위

한 '농협 이동상담실'을 개최했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이 영농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소비자 문제에 대한 각종 고민을 분야별 전문가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 현장으로 이동해 강의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현장 위주의 농업인 심의사업이다.

이번 농협 이동상담실은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한 서대전농협 농업인(조합원) 및 취약계층 주민, 부녀회원, 농주모회원, 고주모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법률교육과 상담,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최시규 조합장은 "농업인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소송과 피해사실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농협 이동상담실이 농업인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서산시 직거래장터 활성화 워크숍 열려

서산시는 팔봉면 폰타나리조트에서 4일부터 5일까지 '직거래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 해미읍성 장터, 삼김포 장터, 서산농부들 장터 등에 참여하는 70여 명의 농가가 함께 했다.

이 기간 동안 농산품의 안전성 확보가 화두임을 감안해 생산·수확 후 관리와 유통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GAP)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포함됐다.

아울러 고객응대 요령과 판매기법 등 장터 활성화 방안과 함께 오프라인 판매의 한계 극복과 온라인 직거래 전략 등 효과적인 마케팅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참여 농가들은 질문과 토론을 자

유롭게 교환해 현장에서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스스로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시의 요청에 따라 at'농산품유통 교육원이 지역맞춤형 직거래 현장교육의 일환으로 워크숍 교재, 강사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앞으로 워크숍에 참여한 농가들은 정보 공유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영세농은 정부의 유통정책에서 많은 부분 소외돼 있다"라면서, "이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가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다양한 유통경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 집중호우 피해주민 정기분 재산세 감면

### 천안시, 주택·토지 등의 재산상 피해 본 주민들 세 부담 경감

천안시는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천안시는 폭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코자 4월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주택·건축물·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세특별제합법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비박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방세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집

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본 사실상의 소유자로, 주택 또는 건축물, 농경지가 파손, 매몰, 유실된 경우 올해 정기분(7월·9월) 재산세를 100% 감면해 준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반포 또는 전파면 주택 등은 20층 2000㎡이며,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1,893필지 102만 2000㎡, 감면에 상액은 총 7300만원으로 전망된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조금이나마 자력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천안=구본성기자



# 아산시 둔포면 첫 벼 베기 실시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이대희(58세, 둔포면 이장협의회장)가 농가에서 지난 4일 관내에서 첫 벼 베기를 실시했다.

2.4ha의 논에 조생종 품종인 청이를 경작해 이번에 수확한 벼는 아산쌀은쌀 원료곡으로 둔포농협 RPC에서 전량 구매해 바로 도정 후 높은 가격으로 추석 햅쌀용으로 납품하게 된다.

올해 극심한 가뭄과 호우 등 힘든 기상여건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함이라는 타고난 천성과 첨단 영농기술 도입 등 농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백준기 둔포면장은 "가뭄과 폭염 그리고 집중호우를 잘 이겨내고 농가의 노력으로 이렇게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며, "그 간의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행복하고 질실 수 있는 둔포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농촌총각국제결혼 정착지원금 지원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인구증가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촌총각 국제결혼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혼인 신고일 기준 2년 이상 청양군에 계속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만35세 이상 된 초혼 농업인으로 국제결혼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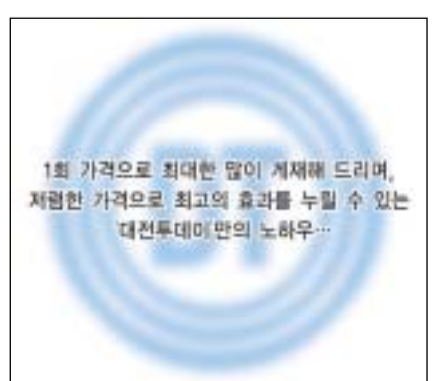
또 2013년 이후 결혼한 사람으로 1인당 1회만 지원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조건이 맞는 다문화가정은 오는 29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정착지원금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한 가정당 3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 받게 된다.

군은 지난 2007년 청양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석화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 선문대, 학생 기숙사 RC라운지 준공식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지난 4일, 성화학숙(기숙사) 친교관에서 황선조 총장, 박정훈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교관 선문 마을공동체 RC라운지 구축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15일 착공해 8월 25일 준공된 RC라운지는 총 957.6㎡이다. 메인 홀 96석, 4인용(4실), 12인용(2실), 20인용(3실), 24인용(1실)의 세미나일이 갖춰져 성화학숙의 RC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생 자율활동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RCResidential College프로그램

이런 학생들에게 단순히 거주공간이던 Residence Hall을 생활체육 교육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주간의 학습활동과 방과 후 공동체 활동을 융합한 통합형 교육체로서 창의적 역량을 갖춘 섬김의 리더를 양육하는 명문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선문대는 2016년 교육부의 '잘 가르치는 대학' ACE대학에 선정된 후 ACE사업 중 하나로 RC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선문대는 신입생 전원이 기숙사에 입주하게 된다. '성화학숙'이라 불리는 선문대 기숙사에서는 '선문촌장마을'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RC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산=리량주기자

# 실험실서 나온 연구성과로 일자리 1만개 만든다

## 과기정통부, 기술사업화 과정·결과 따른 고급일자리 창출 선포식

정부 연구개발(R&D)투자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 실험실 내에 축적된 과학기술 연구성과가 기업성과와 기술창업으로 이어져 고급일자리 판개를 만들어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고려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 선포식을 개최했다.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란 정부 R&D 성과물의 기술이전·창업 등 사업화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 뿐 아니라, 후속 R&D, 사업화 모델 마련 등 기술사업화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카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종전의 기술이전 및 기술료 관점에서 연구성과를 추구하던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기초원천 연구개발에서 나온 우수 결과물이 기술사업화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급일 자리를 창출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간 주요 기술사업화기관의 기술사업화 과정 및 결과에서 창출된 일자리 성과를 바탕으로 중기재정계획 및 일자리 추세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도전할 목표치(1만개)를 제시했다.

실험실에서 나온 연구성과를 기술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원천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숙시키는 '후속 R&D' ▲시장분석, 대상 고객 설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화 모델 구축' ▲기술박람회 등을 개최해 기업과 기술보유 연구자를 서로 찾아주고, 협업하도록 도와주는 '마케팅' ▲지식재산권(IP) 전략 수립, 사업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하는 '멘토링'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 등의 체계적인 활동들이 필요하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 R&D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기반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앞으로 서비스일자리, 지역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중심대학'으로의 대학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연구 중간발표회도 함께 진행했다. 대학은 연간 약 4조2000억원(2015년 기준)이 넘는 정부 R&D를 수행하는 만큼 R&D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톨릭관동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

(GIST) 등 3개 연구팀이 참여한 기획안에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대학 연구실 기술기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학 보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대학 인근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가칭 과학기술기반 일자리클러스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발표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중심대학'으로의 대학 역할 유도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람을 키우는 대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화기자

### 호서대 수시모집, 학생부

### 전형 수능최저기준 폐지

호서대학교(총장 신대철)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전형에서 간혹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 이로써 호서대는 수시 모집인원 2316명 중에서 이번 학생부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에 따라 2302명을 수능응시여부와 상관없이 모집한다.

학생부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90%와 출결 10%를 반영해 선발한다. 단,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간호학과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어·수학·영어·탐구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9등급 이내이다. 호서대 2018학년도 수시전형은 ▲학생부전형 ▲면접전형 ▲지역 학생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전형 ▲농어촌전형 ▲호서인재전형 ▲사회배려자전형 ▲특성고교교졸업자전형 ▲재직자전형 ▲실기전형 ▲체육특기자전형 등이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 백석대 山史현대시100년관

## 사천 이근배 시인 초청강연 개최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山史현대시100년관은 9월 7일 오후 4시, 교내 창조관 1층 세미나실에서 '시로 해가 뜨고 시로 달이 지네'라는 주제로 운동주탄생 100주년 기념 시인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천안=김정환기자

2017년 문학주간(9.1~7)을 맞춰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서 이근배 시인은 소중한 우리의 열, 말, 글로 꽃 피워온 찬란한 문화예술, 전경과 분단, 억압과 갈등의 위기를 이겨낸 아름다운 모국어의 힘 등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사천(沙泉) 이근배 시인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1961년 경향신문에 '묘비명', 서울신문에 '벽'이라는 작품이 당선돼 문단에 등단했으며, 이후 현실적인 배경 속에서 서정적 감성을, 전통적인 시조 속에 현대사 감각을 담은 작품들을 발표했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강연에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대학교 재학생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참여해 함께할 수 있다.

천안=김정환기자

## 공주시, 철도관광객 유치·홍보에 박차

전국 철도 마케팅관계자 및 전문여행사와 관광정보 공유기회 가져

파워블로거와 여행작가를 통해 관광자원 홍보로 개별 관광객 유입 효과도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철도여행사 및 협력 여행사 관계자, 파워블로거를 초청, 다양한 관광영차 상품 개발을 위한 사전담사 추진 등 철도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사전담사단은 공주역을 출

발해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비롯한 천년고찰 마곡사, 공주하숙마을이 위치한 근·현대문화의 원도심 투어를 실시하고 공주한옥마을에서 숙박하는 등 1박 2일동안 공주시 주요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둘러봤다.

특히, 공주야경 둘러보기와 한옥

마을 체험으로 체험형 관광여행의 정착 가능성과 공주산성시장 지역 특산물 구매와 지역의 대표음식인 갈국수 등 으뜸맛집 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전문여행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다.

시는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공주역 연계 흥미진진 관광상품을 28회 운영한 결과, 56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개별 관광객 유입으로 공주역 활성화 및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광의 문화관광과장은 "철도역 관계자와 전문여행사 간 관광정보 공유로 매력적인 관광영차상품으로 관광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영남 호남권 등 전국으로의 모객과 홍보를 확대해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입이 개개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 대덕대 해군특수학과 '직업군인체험' 접수

대덕대 해군특수학과는 직업군인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직업군인 및 기술부사관에 관심 있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직업군인에 대한 소개 및 해군특수학과 전공체험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해 진행한다.

이정복기자

대덕대에는 해군기술부사관과, 합정기술부사관과, 해양수중부사관과 3개의 해군 특수학과가 있으며, 직업군인으로서의 기초 소양, 국방기술의 맞춤형교육과 학교교류 협력을 통해 매년 전국 최다해군 군장학생 및 기술부사관을 배출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 중국 편의점 입점으로 재도약 꿈꾼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목)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중국 편의점 MD 초청 입점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상담회에는 세븐일레븐, 로손, 오뚜기 등 중국 유력 15개 편의점 MD 및 공급 바이어 35명과 국내 수출업체 55개사가 참가했으며, 즉석밥, 컵라면, 김스낵, 차음료 등 편의점 상품 입점을 위한 1:1 매칭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약 1260만달러의 상당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aT는 중국의 파룬파, 까르푸 등 주요 대형유통매장이나 씨티 슈퍼, 올레 등 고급 매장 위주로 수출 마케팅을 추진해 왔으나, 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유통 채널 개척을 위해 편의점 마케팅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중국 편의점 산업은 최근 도시

인구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급성장하면서 향후 중국에서 가장 유망한 유통채널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으며, 국제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의 조사에 의하면, '16년 중국 편의점 점포수는 약 9만8000개, 매출액은 1334억 위안(약 22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한국식품의 경우, 컵라면과 김, 과자 등 일부 가공식품이 중국 내 편의점에 입점되어 있기는 하나, 대형유통매장 입점에 비해 규모와 구색이 작아 향후 본격적인 편의점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백진석 aT 식품수출부장은 "향후 중국 편의점 시장의 발전성이 큰 만큼 하반기 중에 중국 편의점과 연계한 한국식품 특별관객전을 개최하는 등 편의점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청년 취업역량 프로그램' 참가학생 모집

한밭대학교 일자리본부, NCS능력중심 채용 대비



한밭대 대학일자리본부(본부장 남윤의 교수)에서 '청년 취업역량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NCS기반의 직무관련 정보만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해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NCS능력중심 채용에 대비하는 취업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청년채용동향과 NCS능력중심채용에 대한 소개, 기업과 직무역량 탐색을 비롯해 나의 강점과 관심기업·업종 찾기, 능력중심채용 입사서

경 취업지원관, 전화 042-828-862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밭대 대학일자리본부 유기봉 취업지원센터장은 "최근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NCS능력중심 채용 관련 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며 "이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지역 대학생들에게 관련 취업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밭대 대학일자리본부는 우리 지역 청년·대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우리 지역의 3-4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 30여명이 참여하는 공기업·대기업 성공취업캠프를 개최해 입사지원서 작성법, 유형별 모의면접 등을 진행했으며, 한밭대 학생 및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항공서비스 매니저 자격시험 취득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아울러 취업지원관 6명이 상주하면서 우리 지역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관련 상담과 채용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 청양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 가까이 찾아가서 듣겠습니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5일 지리적 이유로 군청 방문이 어려운 정선면과 인근 3개면 주민들을 위해 정선면 분회경로당에서 주민과의 소통채널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운영했다.

이석화 군수는 오는 8일부터 개최되는 제18회 청양고추구기이동군수실에서 나온 11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관련 부서장과 함

께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석에서 답변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의견은 다음 이동군수실 개최 시 별도로 정리해 설명하기로 약속했다.

이석화 군수는 "올해는 대통령 선거 등 영향으로 두번째 이동군수실이지만, 기회가 날 때마다 주민들 가까이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행정적 주민의견을 청취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서천소방서, 기산면 주민건강검진대회 서천소방서(서장이중하)는 5일 오전 기산면 주민건강검진대회 행사에서 주택용소방시설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검진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운영되었으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과 전단지 등을 배부했다.



홍성경찰서, 물레카메라 근절 대책 마련 홍성경찰서가 사회의실에서 홍성군청, 홍성교육지원청,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산소방서, 말벌 기승 벌쏘임 주의 당부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주택가 등에 말벌이 자주 출몰하고 벌쏘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산경찰서, 유공자 표창 수여식 아산경찰서(서장 김형구)는 지난 4일, 사회의실에서 각 과장, 계장 및 지구대·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중 유공경찰관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충남농협 '산지유통 종합대상' 2년 연속 수상 영예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한형)는 5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산지유통 비전 2033 연합마케팅 사업' 최우수 지역본부로 선정돼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산지유통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 부여소방서 '청탁금지법 준수' 교육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위해... 전 직원 대상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준수에 대한 자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해 공직자의 지위권한과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법원 판례 및 주요 해석례와 법 내용에 대한 교육과 공익신고의 중요성 및 절차 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직비리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통한 부패신고 활성화 등이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전 및 상품권 등 금품에 해당하는 종류와 직무 관련성 등에 따른 수수 금지 행위, 선물의 신고 및 반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부여=김태선기자

# 투스환·다시마환 제품, 비소 및 카드뮴 다량 함유

## <한국소비자원>조사결과...중금속 다량 검출, 소비자들 주의 필요

최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다양한 효능을 가진 자연식품을 단순가공한 건강표방식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투스환·다시마환 제품에서 중금속(비소,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한 30개 제품(투스환 15개, 다시마환 15개)을 대상으로 한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시험검사 결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30개(투스환 15개, 다시마환 15개) 전 제품에서 '비소'가 7.1~115.7mg/kg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특히, 투스환에서는 '카드뮴'도 15개 중 14개(93.3%) 제품에서 0.6~2.3mg/kg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투스환, 다시마환의 제조과정 중 수분감소로 단위 중량당 중금속 함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동 제품들에 대한 중금속 관리기준은 없음. 해당 원료를 건조한 후 가루로 만들어 환 형태로 제조되었고, 제품 표시에는 1일 2~3회 정량을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을 고려, 생약(자연물)을 그대로 또

는 말리거나 썰거나 가루로 만드는 정도의 간단한 가공처리를 하여 의약품으로 사용하거나 원료로 삼는 것의 중금속 기준을 준용함.  
그러나 조사대상 모두 '기타가공품' 또는 '수산물가공품\*\*' 식품 유형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해당 유형에는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기준이 없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제품들은 성인 기준 1일 2~3회 10~50알 정도를 섭취하도록 제품에 표시되어 있고 어린이는 성인의 절반 용량을 섭취하

당진소방서, 추석대비

### 소방안전대책 추진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진)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에서는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노인복지시설 등 피난취약시설 현장지도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다중밀집지역에는 전광판 홍보 동영상 송출 및 안전 픽토그램 배부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홍보도 펼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패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29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또 공무원 3780명과 소비자 명예감시원 4230명 등 80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중 2만 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품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아울러 추석 맞이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큰 농·수산물물의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단속한다.  
식약처는 한과·떡·사과·배·고사리·조기·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영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 아산소방서, 관내 축사시설 화재 예방주의 당부

### 최근 3년 간 충남 내 축사화재는 17건 발생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관은) 최근 충남 내 축사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축사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3년 간 충남 내 축사화재는 17건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7억9천 여만원이 발생했다.  
발생원인으로는 ▲보온등 고정 철사 부식 등으로 낙하 시 돈사 바닥에 깔아 놓은 볏짚, 톱밥 등 가연물과 접촉 발화 ▲용량을 초과한 보온등 설치로 과부하가 발생

하여 전기배선에서 발화 ▲보온등 윗부분에 가연성 물질(먼지, 톱밥) 등이 쌓여 자연방열의 저해로 열이 축적되어 발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노후 전기시설 등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축산업자들의 자율방화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또한 축사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고정용 철사의 정기적 점검 및 교체로 보온 등 관리, 전기배선의

정격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보온등 설치, 보온등의 오염, 부식, 노후화 등의 방지를 위한 청결상태 유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 화재예방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축사화재의 경우 대부분 전기합선이나 난방을 위해 설치해 놓은 보온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만이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며 "1농가, 1축사에 소화기 갖기"를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예산소방서,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 안전관리 나서

### 추락위험 다중이용업소 대한 안전관리 추진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최근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추락위험 비상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락위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비상구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추락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계인 교육을 실시하고 추락 방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또 안전사고 위험성과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유흥주점·노래방·단란주점부터 순차적으로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소방특별조사와 비상구 불시단속 등 현장방문 시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를 지속 확인,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에는 안전로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의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예산=양성업기자



## “소화기 위치표지 바꿔주세요”

### 소화기 누구나 쉽게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소화기 시각지대 해소 및 배치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대형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소화기 위치표지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판매시설에 소화기의 적절함 배치와 위치표지를 개선해 누구나 쉽게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방서는 관내 대형 판매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소화기 재배치와 위치표지를 개선하고 비상구

등에 시민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디자인한 안전 픽토그램을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제작해 부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오영환 공주소방서장은 “소화기의 비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위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태안소방서, 9월 소방특별조사 추진

### 관내 특정소방대상을 대해 정기 소방특별조사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9월 한 달간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정기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위락시설, 운동시설, 방송통신시설 총 8개소를 대상으로 태안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이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 사항 및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무허가 위

험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운동시설의 경우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자의 소방시설 사용법, 대피요령 등 숙지를 위한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소방특별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시정보안명령,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통해 소방안전관리 제해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태안=김정환기자

## 청양경찰서, 안전한 축제 위한 치안확보에 만전

### 범죄예방과 신속검거 위해 내근형사 등 가용인원 집중 투입



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순)는 오는 8일부터 청양읍 백세공원 등에서 열리는 제18회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기간 동안 안전한 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축제기간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장 주변 불정객 소매치기, 차량털이, 주취폭력 등 범죄 증가가 우려되는 시간대에 범죄예방과 신속한 검거를 위해 내근형사 등 가용인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주택가 빈집털이,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순찰강화 및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친환경인증 관련 부정행위 단속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를 병행 실시해 범죄예방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남경순 경찰서장은 “주민과 함께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방 및 신속한 검거활동을 실시할 것으로 주민들도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동정

임시총회



복기왕 아산시장= 6일 오후 2시 군산 시에서 열리는 아 동친화도시 지방 정부협의회 임시 총회에 참석.

임시총회



김홍장 당진시장 =6일 오후 2시 군 산 컨벤션센터에 서 열리는 아동 친 화도시 추진 지방 정부 협의회 임시 총회에 참석.

이동 의정실 운영



이종운 당진시의 장 =6일 오전 10 시 순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리는 순성면 이동 의 정실 운영에 참석, 오후 1시 30분 면천면사무소 회의실 에서 열리는 면천면 이동 의정실 운영 에 참석.

체육대회



한상기 태안군수 =6일 오전 10시 고남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제8회 고남 면민 체육대회에 참석.

게이트볼 대회



이석화 청양군수 = 6일 오전 9시 30 분 우성게이트볼 장(청양읍)에서 개 최되는 제18회 청 양군수기 게이트 볼 대회에 참석.

청양군 재정운용 결과 공개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관심사항 등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운용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재정공시는 2016회계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청양군 살림규모, 재정자립도 등 58개 지표로 구성된 공표공시와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9개 주요사업에 대한 특수공시로 구성돼 있다.

군이 공시한 2016년도 재정규모는 4131억원으로 2015년도 3892억원 대비 6.1% 증가했다. 채무현황은 2015년도 36억6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상환한 36억원이다.

주민 1인당 채무 금액은 11만원으로 이는 유사지치단체 16만1000원보다 낮게 나타나 재정건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7년 5월 1일 기준 전액 상환해 현재 채무액은 없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비교율 예산절감과 지체세입재원 발굴 및 이전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8231;책임성·#8231;건정성·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 중심의 원천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해 정부3.0 핵심 과제인 소통하는 투명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39 대동빌딩 1층

친환경 태양광 LED 도로명판 '눈에 띄네'

태안군, 고남면 8개소와 이원면 7개소에 신규 설치... 8월말부터 본격적 운용 돌입



태안군이 고남면과 이원면 내 가로등이 없는 지역 15개소에 태양광 LED 도로명판을 설치, 관광객 및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에 앞장선다.

군은 고남면 8개소와 이원면 7개소에 총 1,596만 원의 예산을 투입

해 지난 6월부터 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에 돌입,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지난 8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태양광 LED 도로명판은 주간에 태양광을 충전해 야간이 되면 글자

및 표면이 자체 발광하는 시설물로, 별도 전력 없이 안내표지의 조명을 밝힐 수 있는 친환경 시설로 최근적인 운용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태안=김정환기자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예찰로 찾는다

당진시, 소나무 재선충병 사전 차단 총력

당진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항공예찰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산림청 헬기에 담당자가 동승해 진행한 항공예찰은 소유구분 없이 당진 관내의 소나무림이 분포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차단을 위해 항공예찰을 실시한 이유는 지상에선 발견하기 어려운 비가시권 지역이나 산악지역의 소나무 고사목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항공예찰 시 위성항법시스템(GIS) 등의 장비가 이용해 정확한 고사목 위치를 파악한 후 추가 지상 정밀예찰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충청남도 산림연구소에 검사 의뢰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 차단은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항공예찰을 통해 소나무 고사목을 조기에 파악하고 정밀조사 등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하거



나 소나무 재선충병의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면 당진시청 산림녹지

과로 연락하면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청남면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청양군 청남면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총 65농가, 603두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예방접종은 올해 2월 정기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시기의 돼지, 소, 염소, 시슴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슴,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대규모농가는 청양축협, 양돈농협에서 구제역 백신을 사전구매 해 자가접종해야 한다.

염소·소 50두, 돼지 1000두미만

등의 소규모 농가는 접종지원반을 통해 접종이 지원된다.

만약 방역상의 문제로 인해 자가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백신을 수령해 자가접종하면 된다.

청양=정성범기자

신창 삼육희망나눔봉사회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아산시 신창면 소재 삼육희망나눔봉사회(목사 변경보, 회장 전명규)가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오세홍)과 연계해 지난 7월과 8월 매 주말마다 거동불편대상자를 대상으로 복지허브화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이·미용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삼육희망나눔봉사회는 이·미용서비스 봉사단을 구성해 행복키움추진단의 추천을 받아 매 주 신창면 거동불편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달리에 거주하는 한 서비스 수혜자는 "매일 집안에만 있다 보니

머리를 깎지 못해 불편했는데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머리를 깎아주시고 말벗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봉사하시는 그분들이 천사처럼 보였다."며, "항상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전명규 회장은 "우리 봉사회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을 위해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만큼 늘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들을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홍 단장은 "매주 이·미용서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청양군군수 이석화는 5일 농어촌민박사업자 26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도 및 법령, 식품 위생관리, 상황별 고객응대 및 서비스 요령, 화재예방 및 행동요령 등에 관해 교육했다.

이번 서비스안전 교육은 지난 2015년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서비스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 서비

스,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을 총 3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이석화 군수는 "방문객이 청양을 아름답고 즐거운 휴양지로 추억하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해나루쌀 5년 연속 우수성 인정

당진시, 5년 연속 올해의 히트상품 선정



당진 해나루쌀이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상을 5년 연속 수상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일 선정 결과가 발표된 '2017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에서 지방산 차단체 농·특산물 상품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2013년 이 분야에서 처음 수상한 해나루쌀은 이후 올해까지 5년 동안 연속 수상 이어왔다.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하는

'2017 대한민국 올해의 히트상품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조선일보 등이 후원하는 전국단위 온라인 시상식으로, 전국의 지자체 300곳 이상을 대상으로 소비자 사전조사와 전문가 심의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해나루쌀의 5년 연속 수상은 놀라운 결과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 앞서 해나루쌀은 올해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농협 RPC 대표 브랜드 쌀 평가에서 신평농협과 면천농협이 생산하는 해나루쌀이 공동 우수상을 차지한 이후 충남 우수 브랜드 쌀 선정 평가에서도 품질평가 2위에 오르는 등 이미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렇게 해나루쌀이 국내 유수의 시상식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삼광' 단일품종만을 계약 재배하는 등 당진시가 직접 품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기물과 무기물이 풍부한 논에서 환경 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농협의 철저한 저온 보관으로 우수한 맛과 높은 미질을 가진 것이 해나루쌀의 또 다른 장점이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저소득층 금융복지 질 UP

사례관리 담당자 대상 금융복지상담 교육 실시

태안군이 지난 4일 태안읍 장애인복지관에서 각 읍·면 사례관리 담당자와 태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위원, 민간기관 실무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금융복지상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사례관리대상자 상담을 위한 재무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지속해서 제기돼온 데 따른 것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전국 기준 가구당 부채가 6,6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고 과중채무와 생활고, 우울성 질환이 더해져 국민 삶의 질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관내 취약계층이 채무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가계금융 관련 제도 및 사례를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과와 함께 이번 상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이선정 대표이사를 강사로 초청, ▲취약계층의 금융소비 현실과 악성화 과정 ▲채권추심의 이해 ▲채무조정 이해 등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오늘 교육이 채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상담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자들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공유해 적극적·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우리/동네

### 장항하수처리장 '우수시설' 선정

서천군,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완료시설 운영평가

서천군 맑은물사업소(소장 조남용)는 지난 4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2016년도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장항하수처리장이 '우수시설'로 선정되어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2016년도 공단에서 수행한 전국의 110개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완료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적정성 평가 결과 장항하수처리장이 '우수시설'로 선정되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장항하수처리장은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기 연돌 증고 및 탈취방식 개선 등 수처리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인근 마을에 대한 방역활동, 부속토의 무상공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은 2017년도 신규사업비 6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인 장항 하수처리장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까지 현재 1일 4000톤에서 1200톤이 늘어난 5200톤으로 증설한다. 현재 장항지역은 아파트, 다가구 주택 등의 신축으로 하수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하수처리 용량 부족 및 관저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조남용 소장은 "공공하수도 보급 증대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차질 없는 공공하수도 확충을 위해 하수도 시설 관련 사업에 매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김태선기자

### 계룡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박차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욱) 업무면 맞춤형복지팀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등 시혜관리 대상가구에 이불, 수납가구, 가스렌지 등 각 가정의 필요물품을 전달했다.

맞춤형복지팀은 지난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계룡시지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을 찾아 물품을 지원하는 등 복지허브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지난 7월 업무면에 신규 신설된 '맞춤형복지팀'은 찾아가는 서비스, 민관협력, 맞춤형 서비스 연계·제공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의 주거환경 문제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수리에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사례관리 가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지원도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맞춤형복지팀은 앞으로 보일러수리, 방충망설치, 주방시설 정비, 화장실수리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에너지관리공단 등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복지팀 관계자는 "맞춤형복지팀 신설 후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발굴하는 능동적 복지 지원체계가 구축된 만큼 관내 소외계층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논산시민공원 숲속 버스킹

매주 토·일 논산시민공원서 열리는 '숲속버스킹'

논산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숲속버스킹이 성큼 다가온 논산의 가을을 촉촉이 적시고 있다.

버스킹은 '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의미의 버스킹(busking)에서 유래된 용어로 일반적으로 번잡한 거리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라이브 공연과는 달리 숲속에서 평안하고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한다.

3월 18일 시작으로 매주 토, 일밤 열리는 숲속 버스킹은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인디밴드, 어쿠스틱, 재즈, 크로스오버 등 색다른 장르의 공연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주말 열린 숲속버스킹은 박경수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랫말로 소통하는 포크송 공연과 대중가요 '가을이 오면' 등 90년대 곡부터 최신곡을 통기타 연주로 들려주는 박성호씨의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었다.

오는 9월과 10월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그룹사운드 에스민밴드와 전태의 밴드가 출연한다.

시 관계자는 "숲속 버스킹을 통해 쉽게 즐기는 음악부터 평소 접하지 않은 음악까지 가까이에서 접하며 일상 속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공연으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과 한마음이 되어 문화향기 가득한 논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정 사업비 확보

부여군, 세도·양화면 2개지역 각각 60억원 지원 받아 종합적인 생활환경 향상 기대

부여군 세도면, 양화면 2개 지역이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에 최종 선정되어 12억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주민이 주도가 되어 농촌의 읍·면 소재지 중심지를 대상으로 교육·복지·문화 개발·육성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비 13억8천 만원을 포함하여 해당 지구당 60여 명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세도면은 백마강과 인접해 있고, 전국 방울토마토 생산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장점이 있는 곳으로 '금강변 농요가 꽃피는 세도를 담다'라는 비전으로 이번 사업의 추진전략을 세웠다.

정주여건 향상과 토마토 재배단지 활용한 소규모 기반 향상, 특화자원을 연계한 사업 발굴을 목표로 세도중앙길, 산유화길, 유채꽃길을 조성하고, 방울토마토광장, 세도회관,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양화면은 부여군의 최남단에 위치한 남부생활권의 핵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리적 위치로 인해 생활여건이 어려웠다. 이번 사업은 '금강과 갖개포구의 멋이 살아나는 양화'라는 비전 아래 '갖개 활력지, 갖개 생태지, 갖개 안전지' 실현을 목표로 옛 포구의 아름다움을 복원하고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교육, 일자리 등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관 관계자는 "농촌 읍면단위 지역의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인 만큼 사업선정을 위해 주민과 끊임 없이 회의를 거듭한 결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복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여=이정복기자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어르신 요리, 한글교육, 동아리활동 지원, 작은영화관 운영, 돌봄이 육성, 건강증진 코스 조성,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농작물 감시반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한다.

특정

기념행사



구본영 천안시장= 6일 오전 10시 시청 봉서홀에서 열리는 수해복구 유공 표창 수여식에 참석하고 오후 2시 도시창조두드림센터에서 개최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콘서트행사



최홍욱 계룡시장= 6일 오후 2시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천사효도 콘서트 행사 참석.

간담회



이우영 부여군수= 6일 오전 11시 여성문화회관 2층에서 열리는 규암초 학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올바른 구강관리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논산시 찾아가는 치아장수교실 '호응'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동고동락(同苦同樂) 행복공동체 논산을 만들기 위해 운영하는 건강정책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마을로 찾아가 따뜻하게 돌봐드리는 건강관리를 본격화하며, 시민모두가 건강한 논산실현을 위한 2017 마을별 건강특화사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마을별 건강 특화프로그램은 335개 마을 6,0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해당분석을 통해 나타난 건강문제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주민들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가꾸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마을별 건강 특화프로그램 일환으로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성동면 구곡3리, 연산면 화악리 경로당에서 운영 중인 '마을로 찾아가는 치아장수교실'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치과방문이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가 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강문제는 외모 변화뿐 아니라 음식물을 씹기 불편해 소화 장애 증상 등 일상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장수교실'은 하루 중 첫출발 횟수가 가장 낮은 점심 식사 때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 올바른 칫솔질 배움터를 마련하고, 올바른 칫솔질 교육 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는 마을별 건강특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해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한층 높여나갈 방침이다.

박용규 100세행복과장은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관리로 치아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마을별 건강특화사업은 고흥읍, 관전읍, 첫출발2회 이하 대상자, 저연 미실천자 비율이 높은 마을 순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고흥읍 유형을 70세 이상 인구가 높은 부치면은 시작으로 올해 4개 마을에서 진행중이다.

마을별 건강특화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100세 행복과 공동체건강팀(041-746-58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김태선기자

특정

공주시 일반한우의 날 행사



오시덕 공주시장은 6일 오후 6시 30분 대전 한화익스파크에서 열리는 공주시 일반한우의 날 행사에 참석.

제201회 임시회 개최식



김동일 보령시장은 6일 오전 11시 보령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01회 임시회 개최식 참석.

2018 신규시책 대토론회



이완섭 서산시장은 6일 오전 10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 신규시책 대토론회에 참석, 오후 7시 50분 호수공원광장에서 열리는 헬관사랑 캠페인에 참석.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유치 '확정'

서산시, 지역 14개 노동단체 언론브리핑 갖고 환영... 근로자 권리구제·노사관계 안정 전망

서산시는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신설 유치가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석유화학·자동차·화학 등 산업이 집적화된 서산·태안 등의 충남 서북부권에는 9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거대한 생활권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이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부터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유치를 최대 현안사업으로 놓고, 여기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왔다.

이완섭 시장은 성일중 국회의원과 시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민선6기 후반기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진행과정을 직접 챙기며 공을 들였다.

특히 이 시장과 성 의원은 함께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수차례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발품행정을 펼쳐왔다.



이번 서산출장소 유치로 사업장, 안전보건 등에 대한 감독과 노동활동, 근로자 일상 업무 등과 관련된 인·허가 신속하게 이뤄져 근로자 권리구제는 물론 노사관계 안정도 전망된다.

이와 관련 서산·태안 노동단체에서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유치를 환영하고, 서산시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는 신현웅 민주노동당 서산태안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노동단체 대표 14명이 참석했다.

이어 이들은 시장실을 방문하고 이완섭 시장을 비롯해 성일중 국회의원과 우종재 서산시의회의장과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현웅 대표는 "서산·태안의 근로자들은 서산출장소가 이들의 안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그간 서산

출장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성일중 국회의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완섭 시장은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 충남 서북부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산시는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한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보령문화의전당의 보령박물관에

작은 도서관 들어선다



보령시민의 보령문화의전당의 보령박물관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며 따라 기존 복합문화시설에서 도서 문화정보 센터의 역할까지 더해지게 됐다.

보령시는 5일 오전 보령문화의전당에서 김동일 시장과 관계자,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조성된 작은 도서관은 리모델링과 서가 구입 등 모두 3000만 원을 투입, 지난 7월부터 2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보령박물관 2층에 148㎡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유아 및 어린이, 일반자료 코너로 구성됐다.

특히, 보령문화의 전당은 시민의 문화 저변 확대와 이용객 증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무료 개방한데 이어 작은 도서관까지 들어서게 됨으로써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교육문화 복지향상은 물론, 양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문화와 예술, 역사의 장(場)인 보령문화의 전당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아이와 부모가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민의 지식과 정보의 산실이 될 작은 도서관을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보령=김태선기자

우리/동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박차

금산군, 철재해기림 등 14억원 투입 고품질화



금산군은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경감 및 인삼재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총 14억원)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2017년 인삼을 분발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가이며, 인삼철재해기림 시설, 인삼점적관수시설,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시설 3종에 대해 사업비 50%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9월 8일까지이며, 인삼경작확인서, 자조금 납부영수증, GAP인증 신청서 사본 등을 구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인삼철재해기림시설 및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설계도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폭설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삼재배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으로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다"며 "지속적인 인삼재배환경 시설 개선을 통해 고품질 인삼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이두면 쓸모 있는 회계 매뉴얼 제작배포

공주시 효율적 지방재정 집행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직원들의 회계업무 직무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위해 '일이두면 쓸모 있는 회계(지출·계약) 매뉴얼'을 제작, 시 산하 전부서에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총 4페이지 분량으로 회계 관계 공무원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놓치지 않고 금금해 하는 핵심 내용만을 담아 보기 쉽게 제작됐다.

특히, 회계업무처리를 접하는 직원들을 위해 방대한 양의 기존 회계매뉴얼을 실무처리과정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요약했으며, 지출과 계약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매뉴얼 제작을 통해 직원들의 회계업무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향상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운순 재무팀장은 "직원 모두가 매뉴얼을 숙지해 회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감동과 신뢰 받는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금산군보건소보건소장 이화영(右)과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9월 6일 오후 1시, 다락원 생명의 집 대공연장에서 2017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친 내 마음에 심표를 찍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9.10)과 치매극복의 날(9.21)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시부터 다락원 생명의 집 로비와 앞마당에서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충남광역치매센터, 금산경찰서, Wee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체험부스가 운영되고, 2시부터는 대공연장에서 기념식이 진행된다.

기념식 1부에는 유공자 표창, 추부중학교 학생들의 생명사랑지킴이 선서식,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10년의 발자취 동영상 상영 등이 구성되어 있고,

2부에는 「내 마음도 불러주는 당신, 이유는 나에게 있다」(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전우영 교수의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기념식의 식전과 1부와 2부 사이에는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정신재활시설 회원들의 축하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로비에는 정신보건시설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보령머드 전국 합창경연대회 9일 개최

보령시는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보령머드 전국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보령시가 주최하고, 보령머드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한국중부발전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머드로 대표되는 보령시의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중부권 지역문화융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경연에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참가자와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식을 열고, 2시간 동안 참가팀들의 리허설을 갖는다.

이번 대회는 서울·경기지역 11개 팀, 대전 2개 팀, 경남·북 2개 팀, 충남 5개 등 모두 20개 팀, 720명이 참가해 팀당 총 2곡의 자유곡을 선보이고, 경연 중간 이카펠라 그룹 '엑시트'의 축하공연도 열린다.

대회 총 상금은 3700만 원으로 대상은 충청남도지사상과 상금 1500만 원, 최우수상은 보령시장상과 상금 700만 원, 금상은 보령시의회 의장상과 상금 500만 원, 은상은 한국중부발전 사장상과 상금 300만원(2개 팀), 동상은 한국예총충남연합회장과 상금 100만원(3개 팀), 특별상(지휘자)으로 심사위원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김동일 시장은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아름다운 보령에서 제1회 보령머드 전국 합창경연대회가 개최된다"며,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하모니를 멋지게 보여주시고, 시민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수준 높은 예술의 향연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시 중학동 "귀한 목화꽃 보러오세요"

자생화·목화꽃이 조화 이뤄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

공주시 중학동(동장 오종휘)이 요즘 쉽게 볼 수 없는 목화를 키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동에 따르면, 지난봄부터 직접 주민센터 뒤편에 목화씨를 파종, 병충해 4종 한민택 통종의 협조로 모종을 키워 여름에 주민센터 앞으로 옮긴 후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센터 앞에서 양복점을 운영 하는 주민 유 모 씨는 "주말에 도심에 찾은 관광객들이 아름답게 핀

목화를 보며 신기해한다"며, "때때로 어린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한, 새하얀 목화꽃과 자주색 목화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을 학생들과 시민들이 지나가며 한창 구경하기도 하는데, 학생들에게는 작은 자연체험을 어른들에게는 향수와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오종휘 중학동장은 "매일 정성 들여 목화를 가꾸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작은 기쁨을 선물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꽃밭거리와 목화,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등이 가시화한 풍경들로 인해 중학동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동네로 멀리까지 소문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학동은 올해 꽃밭거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제민천 자연부지 꽃길 파종, 풀꽃문화관 주변 풀꽃 단지 조성, 시화 20개소 설치, 감영길 꽃박스 설치, 먹자골목 자생화 꽃박스 설치 등 꽃밭거리 조성으로 구도심을 서정적으로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지방분권 역량 강화해 국가경쟁력 높인다

보령시, 시민 대상 지방분권·민관 협치 인식변화 교육 가져



보령시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난 4일 오후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이·동장, 주민자치위원, 시민,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및 민관 협치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방분권 및 민관 협치의 인식 변화와 이해도를 높이는 등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사회협력동조합 '공동체세움' 박권승 이사를 초청해 자치분권의 이해, 거버넌스 이론, 시민사회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박권승 이사는 "주민들이 진정한 마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고, 또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농업·농촌·사회적 경제·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주민조직과 기관 간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동일 시장은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핵심 국정과제로, 앞으로 획기적인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성, 역동성을 담아내는 균형발전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와 함께 자치분권의 시작은 주민의 올바른 역할과 방향 설정을 통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서산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 '성료'

지역복지활성화·시민복지증진 등 복지일자리 역할 토크

서산시는 5일 시 문화회관에서 사회복지인의 한마음 축제인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봉사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사회복지분야 유공자 등 40여명을 격려하는 등 사회복지봉사자 및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또 여러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한마음 장기자랑을 진행해 사회적

리미 역할도 토크로 해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회복지 가족들이 하나로 화합해 지역복지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00분)



홍주(윤다영)는 태성(임호)으로부터 송인제화 입시를 거절당하지만 끝까지 않고, 태성은 은솔(홍이름)을 찾기 위해 온 한수(김진서) 때문에 심기가 뒤떨린다. 달순(홍이름)은 캠퍼스에서 유재(송원석)와 만나 티격태격한다. 한편, 현도(강다빈)는 일 때문에 대학교에 들렀다가 동훈과 싸우는 홍주를 도와주고, 달순은 경찰서에 들러 정육을 찾는데..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30분)

달남이 개발한 신제품과 같은 상품이 경쟁사에서 먼저 출시되고, 선호는 레시피 유출을 의심하고

케이블 명화

인사이드 아웃 (OCN 오후 5시00분)

"팬찮아, 다 잘될 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감정 컨트롤 본부

그곳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다섯 감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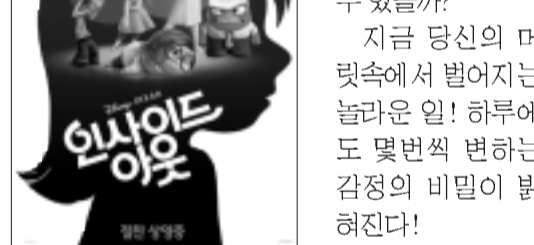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라일리'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바쁘게 감정의 신호를 보내지만 우연한 실수로 '기쁨'과 '슬픔'이 본부를 이탈하게 되자 '라일리'의 마음 속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라일리'에 애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쁨'과 '슬픔'이 본부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엄청난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는 머릿속 속에서 벌어지는 분부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한데...

과연, '라일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 하루에도 몇번씩 변하는 감정의 비밀이 밝혀진다!



그 배후로 세나를 지목한다. 세나는 끝까지 유출한 범인을 찾겠다는 선호 때문에 조조해하고 식당 직원에게 혐의를 덮어씌운다. 한편 달남은 세나가 망가트린 컴퓨터 속에서 팔찌사진을 복구하려 애쓰는데...

병원선 (MBC 오후 10시0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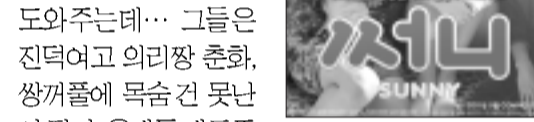


오른쪽 팔이 걸린 시간과의 싸움. 강한 폭풍우 속 발이 묶인 병원선에서 정호(송지호)의 팔 절단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고립된 병원선, 열악한 환경속에서 은재(하지원)는 수술을 결심하는데..

써니 (채널CGV 오후 1시10분)

전라도 발교 전학생 나미는 긴장하면 터져 나오는 사투리 탓에 첫 날부터 날라리들의 놀림감이 된다. 이때 범상치 않은 포스의 친구들이 어리버리한 그녀를 도와주는데...

그들은 진덕이고 의리장 춘화, 창개쫄에 목숨 건 난이 장미, 옥배를 대표주자 진희, 괴력의 다구발 문학소년 금옥, 미스코리아를 꿈꾸는 사차원 북희 그리고 도도한 얼음공주 수지. 나미는 이들의 새 멤버가 되어 경쟁그룹 '소년시대'와의 맞장대결에서 할미로부터 전수받은 사투리 욕 신공으로 위기상황을 모면하는 대활약을 펼친다. 일곱 명의 단짝 친구들은 언제까지나 함께 하자는 맹세로 칠공주 '써니'를 결성하고 학교 축제 때 선보일 공연을 야심차게 준비하지만 축제 당일,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그로부터 23년 후, 잘 나가는 남편과 예쁜 딸을 둔 나미의 삶은 무언가 2프로 부족하다. 어느 날 '써니' 장 춘화와 마주친 나미는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써니' 멤버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는데... 가족에게만 매어있던 일상에서 벗어나 추억 속 친구들을 찾아나선 나미는 그 시절 눈부신 우정을 떠올리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자신과 만나게 된다.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퍼펙트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 협회 060-398-3355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s program schedules for each channel.

서산 여중 사격팀, 대통령경호처장기배 3연패 달성

제12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단체전 금메달 · 개인전 은메달



서산여중교장 김미영이 2일 전남 나주시 소재의 전라남도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12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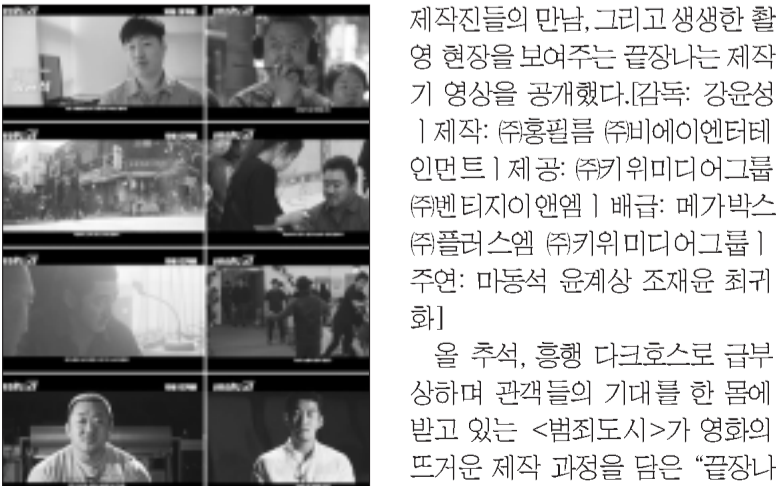
'남부지역이 함께하는 문화유적 탐방' 실시

충남남부평생학습관 남부지역 대표 학습관 역할수행의 일원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학습관 학습관 역할수행의 일원으로 지난 관(관장 김용진)은 남부지역 대표 2일 금산도서관을 시작으로 9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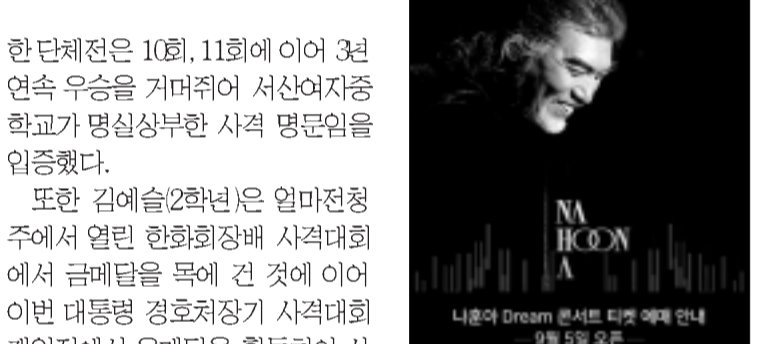
실화범죄액션영화 '범죄도시' 제작기 영상 공개 '기대감 ↑'



실화범죄액션영화 <범죄도시>가 마동석, 윤계상과 총무로 최고

나훈아, 11년만 콘서트 개최

...티켓 예매 열기 '후끈'



가수 나훈아 콘서트 예매가 5일 정도 진행되는 가운데, '나훈아 티켓 예매'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YES24는 5일 정도 나훈아 티켓 예매가 열리며 나훈아 드림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예정이다. 나훈아 티켓 페이지 안에서 서울, 부산, 대구 등 각 지역을 선택하면 예매 사이트로 연결된다.

오는 11월 3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개최되는 나훈아 드림콘서트는 11월 3일~5일 서울 올림픽홀, 11월 24~26일 부산 벡스코, 12월 15~17일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다. 서울 공연을 기준으로 R석은 16만5000원, S석은 14만3000원, A석은 12만1000원에 판매된다.

소속사는 "나훈아가 직접 기획 연출하는 이번 공연 무대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11년간 쌓아온 품격을 토해내듯 솜아부어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넘보거나 흉내낼 수 없는 황상의 무대"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훈아의 이번 콘서트는 지난 2006년 12월 데뷔 40주년 공연 이후 11년 만에 열리는 공연으로 많은 음악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작진들의 만남, 그리고 생생한 촬영 현장을 보여주는 끝났다는 제작기 영상을 공개했다. 감독: 강윤성 | 제작: ㈜윙클림 (주)비이엔터테인먼트 | 제작: ㈜키위미디어그룹 (주)비이엔터테인먼트 | 배급: 메가박스 (주)플러스엠 (주)키위미디어그룹 | 출연: 마동석 윤계상 조재윤 최귀화

을 추석, 흥행 다크호스로 급부상하며 관객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범죄도시>가 영화의 뜨거운 제작 과정을 담은 "끝났다는 제작기 영상"을 공개했다.

영화 <범죄도시>는 2004년 하반기에 개봉된 신혼범죄조작을 일망타진한 강력반 과묵 형사들의 조폭소탕작전을 영화화 한 작품.

이런 공개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감을 100% 살린 리얼한 장면들과 액션으로 짜릿한 카타르시스 선사할 <범죄도시>는 오는 추석 개봉을 앞두고 관객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신림청,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 간담회** 신림청은 5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국내 산림·임업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지철 도교육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 격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5일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를 방문해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및 지도교사들을 격려했다.



**공주대 '바른세끼' 동아리, 바른식생활 캠페인** 공주대 '바른세끼' 동아리 학생들은 '섬 마이웨이'라는 주제로 농·어촌을 넘나들며 바른식생활 개선을 위한 캠페인 행사를 펼쳤다.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지난 4일, 2018년 참여예산편성을 위한 제2차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4일(약 1개월간)까지 읍면동 및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95건의 주민제안사업과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7건 등 총 102건의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N농협은행 충남영업부,팜스테이마을 농촌체험** N농협은행 충남영업부(부장 홍순관) 직원 40여명은 지난 4일 업무 종료 후 서천군 화양면 달고개 모시마을을 찾아 팜스테이마을 농촌체험과 지역 대표 먹거리인 모시떡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직원간 화합과 대고객 맞춤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청양군 장평면새마을회, 이웃돕기 배추 식재** 청양군 장평면 남녀새마을협의회(회장 임동일, 김순록)는 지난 4일 겨울철 시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쓰일 배추를 식재했다.

## 한밭대학교-길림성 장춘사범대학 공동과제 연구 등 국제교류협정 체결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송하영 총장 등 방문단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자매대학인 중국 대련이공대학을 방문해 학생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교류확대방안을 논의하고, 길림성 장춘사범대학과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문단은 8월 31일에 대련이공대학(총장 귀동밍)을 방문했다. 대련이공대학은 학생수가 약 4만명으로 중국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국가중점대학이다.

한밭대는 이 대학과 지난 2009년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교환학생 교류를 비롯해 국제캡스톤디자인 교류와 자작 자동차경진대회 공동 출전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한밭대, 대련이공대학, 일본 이이테대학, 말레이시아 파항대학 등 4개 대학이 참여하는 'Asia Joint Symposium'을 매년 번



같이 가며 개최하는 등 글로벌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금년도 심포지엄은 대련이공대학에서, 내년에는 한밭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밭대 방문단은 9월 1일 중국 내 12개소만 특별 허가된 글로벌 전자상거래 클러스터(주임 쿵웅지)를 참관하고 중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으며,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 학생 과건과 교수·직원 교류, 공동과제 연구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한밭대 방문단은 장춘 흥통 종합보세구 내에 위치한 중국 동북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한백상성(krtmall.com 대표 지양정모)'의 본사 및 전시장을 방문해 상호 글로벌산학협력 촉진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한밭대 송하영 총장은 "중국은 고속철 시대를 맞아 중국 동북지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단일경제권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은 동북지역 대표 도시인 대련과 장춘의 대표 대학과 첨단 클러스터와의 교류 확대차원에서 기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생 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현장 중심 글로벌 인턴십 확대와 가족회사의 중국진출 활성화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체결로 양 대학 간 교

이정복기자

## '자연미술로 탐색하는 7월 의아트사파리' 참여자 모집



자연의소리사회적협동조합이 공주시민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자연미술로 탐색하는 7월의 의아트사파리' 2기 과정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주시민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자연미술로 탐색하는 7월의 의아트사파리'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와 아루자연미술국제제언스프로그래의 협력으로 연미산 숲속마루(공주시 우성면 연미산고개길 93)에서 자연미술 이론 강좌, 작품 감상, 자연미술 창작, 전시회 참여, 국내의 자연미술작가들과의 만남과 교류 등으로 진행된다.

공주시민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자연미술로 탐색하는 7월의 의아트사파리'는 자연미술에 관심 있는 시민, 학생, 교사,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9월 8일, 15일, 22일, 27일 실시하며, 수료자에게는 과정 수료증이 수여된다.

이 행사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041-853-8838 / yato@harmaline.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성범기자

## '유공공무원 교육감 표창' 전수

태안교육지원청, 청렴도 측정 결과 따른 청렴 우수기관



사진원쪽부터 송암초 윤영옥·원이중 최정일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은 지난 5일 충청남도교육청의 2017 기관학교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청렴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교육감 표창을 전수했다.

이날 표창은 청렴 우수기관 중 기관(급별 상위 3% 기관)의 청렴 유공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청렴 및 반부패와 연계하여 교육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세로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청렴을 실천한 송암초 윤영옥, 원이중 최정일 행정실장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태안교육지원청 김형근 교육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묵묵히 함께 뛰여 주신 모든 교직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태안지역이 교육공공체 청렴문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태안=김정환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 지역개발사업 등

### '수자원관리 발전방안 토론회' 가져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지사장 김남표는 지난 4일 공주시 정안면 소평이활성화센터에서 지역개발사업 및 수자원관리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 직원들은 상반기에 추진한 지역개발사업 및 수자원관리 업무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이 가운데 미흡한 점과 앞으로의 발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7기구의 성공적 준공

을 통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기후변화 대비 양질의 용수를 적기 공급하기 위한 효과적인 물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김남표 지사장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객인 농민과 농촌 거주민들에게 필요한 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직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범기자

## '가야곡 5형제의 나눔은 아름다웠다'

논산가야곡 5형제 나눔리더스클럽 3호 가입



논산시 가야곡면에 살고 있는 5형제가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는 5일 논산시 가야곡면에서 류제웅 5형제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리더스클럽 인증패를 전달했다.

가야곡 5형제는 후손들의 귀감이 되고자 형제들 공동 이름으로 1천만원을 기탁해 가야곡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류씨 5형제 첫째 류제웅씨(농업), 둘째 류제순씨(남편 천중옥), 셋째 류제삼씨(삼호건설), 넷째 류제희씨(가야곡떡방앗간), 다섯째 류제도씨(쌍용자동차) 등 이렇게 5명이 공동으로 1천만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

을 위해 기탁했다.

첫째 류제웅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을 이어 받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실질적인 나눔활동 참여와 기부활동을 솔선수범해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형제들이 공동으로 1000만원 기부할 하게 됐다"며 "형제들이 함께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하게 되어 더욱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관형 충남공동모금회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문화 활성화에 앞장선 논산시 가야곡 류씨 형제들에게 감사하다"며 "가족들이 솔선수범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지역과 우리나라의 건강한 미래를 엿볼 수 있어 더욱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건양대 '한국형 웰딩 연구' 2단계 사업 선정



건양대학교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한국형 웰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김광환(사진) 교수)의 2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2년 동안 총 4억 원을 지원받는다.

2013년 씨앗형 연구인 '의료인문학에 기반한 죽음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새싹형 연구 '한국인의 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문학 기반 완성형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업(3+2)에 선정되어 2017년까지 3년간 연구 활동을 수행해왔다.

1단계 사업 기간(2014.9.1~2017.8.31) 동안 인문·사회, 보건·의료 영역의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죽음관련 교육, 인력양성, 교육체계 및 사회 시스템 구축 등 국가 단위의 죽음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학술논문 발표, 저서 발간,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와 같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죽음교육의 전국적인 확대, 나아가 세계화까지 진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정복기자

**인사**  
■한밭대학교  
▲감사실장 조인성 ▲대의협력부처장이장훈

### 기고

## 8·2 대책 한달... 주택시장 새 흐름 읽기

새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인 8·2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다 돼 갔다. 이번 대책은 세금, 대출, 재개발·재건축, 청약 관련 제도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은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급의 초강도 투기억제책이라고 할 만하다.

과열양상을 빚던 주택시장은 이제 숨고르기로 접어들었다. 일부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해도 거래가 뜸하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막연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여러 주택을 투자하기보다는 살만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새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 즉 '투자 가치'보다 '거주 가치', '분산'보다 '합축'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다.

이 같은 주택시장의 새로운 흐름 형성에는 양도소득세와 재건축관련 제도 변경이 큰 요인이다. 다주택자가 내던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 때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가 적용되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 물린다.

최고세율이 2주택자는 50%, 3주택자는 60%에 이를 수 있는 셈이다.

다주택자에게는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주택 가격이 올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세후 수익률이 푹 떨어져 여러 채의 집보다 거주 여건이 좋은 한 채를 소유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 것도 주택의 실 거주 가치를 중시하는 흐름을 재촉할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1가구 1주택자들도 2년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동안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낮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택에서는 개발이 끝나기 전에는 거주요건 충족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9억 원을 넘는 1주택자도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거주 2년'을 갖추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큰 차이가 난다.

이번 대책으로 거주를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전세를 지렛대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투자' 열풍은 시들해질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아파트를 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바로 2년 거주요건이다.

이제는 주택을 선택할 때 투자재 개념의 하우스보다 안식처 개념의 '홈'의 비중이 종전보다 많이 올라갈 것이다. 한동안 아파트 재테크의 상징이었던 재건축의 미래도 안개 속이다.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고수익' 등식이 깨질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금지로 마음대로 집을 사고팔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시장이 불안할 경우 해당지역이 분양가능한지 적용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다 내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 수익성이 약화되는 만큼 재건축 가능성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 풍선효과를 기대한 투자가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풍선효과는 지속기간이 짧은 게 특징이다. 시장이 급변하면 기존 투자가 발산하던 매력도 사라진다. 부동산은 적어도 2~3년을 보유하는 장기 투자 상품인데 풍선효과를 내다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당장은 규제가 없더라도 시장이 과열되면 규제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요즘 청약경쟁률이 뜨거운 지방의 비규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는데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없지 않아 분위기에 들떠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변동성 완화에 있다. 즉 가격과 거래량이 물 흐르듯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국지적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수요억제 중심의 처방으로 정책적인 지속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대폭 확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의 병행 등 일부를 보완하면 주택시장 안정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 스타지문단 부동산수석위원>

## 사설

### 인터넷 자살 유해정보 차단해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살을 부추기며 방법을 안내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줍인(人)'과 경찰청 사이버 범죄 모니터링단 '누리캅스'는 지난 7월 12~25일 인터넷상의 자살 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총 1만2천108건을 신고했다.

발견된 자살 유해정보는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이 6천245건(51.6%)로 가장 많았고 동반자살 모집 2천413건(19.9%), 자살방법 안내 1천667건(13.8%), 특목물 등 자살 도구 판매 1천573건(13%),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 210건(1.7%)이었다.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은 커뮤니티(2천683건·42.9%)나 포털사이트(2천336건·37.4%)

에 많이 올라왔다. 동반자살 모집은 SNS(2천332건·96.6%)에서 주로 이뤄졌다.

자살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은 커뮤니티(1천30건·61.7%)에 가장 많았고, 특목물 등 자살 도구 판매는 기타 사이트(965건·61.3%) 외에 SNS(521건·33.1%)에서도 많이 이뤄졌다.

이번에 발견된 자살 유해정보 중 46.2%인 5천596건은 운영자 등에 의해 삭제 조치됐다. 자살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은 68.7%가 삭제됐지만,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내용은 삭제율이 23.8%에 그쳤다.

SNS를 통해 특히 위험한 동반자살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는 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와 경찰이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트위터 등 SNS 운영업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임금체불 기업 불이익 크다

앞으로 임금체불자나 조세포탈자는 2년간 지자체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니 기대가 크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을 한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노동자의 권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같은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부실 계약이행이나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등 과거에 있었던 부당한 행위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별다른 제재 처분을 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도입한다. 담합·부당한 금품 제공자는 7년간 다른 제재 처분을 받지 않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업체가 많은 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했지만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예상치 못하게 불거져 입찰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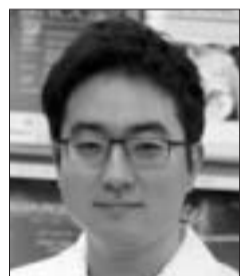
아울러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부당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임금체불이나 조세포탈자 등 입찰에 걸격사유가 있는 업체에 대한 지자체 발주사업 참여 제한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기업의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건강 칼럼

## 대상포진 초반 사흘이 치료 골든타임



김응돈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통증의학과 교수

어릴 때 수두의 형태로 유입된 수두의 원인 바이러스인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대개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다. 건강한 상태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라면 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신경절을 따라 해당 분절의 피부로 수포를 일으키게 된다. 또 신경절이 지배하는 부위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 초기에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다. 닭에 걸린 듯 쑤시고 열이 나며 기분 나쁜 통증이 나타나는 게 공통점이다. 하지만 대상포진은 통증이 생긴지 2~3일 지나면 통증 부위에 수포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가슴과 몸통에 수포가 잘 생기지만 눈, 귀 부위와 같은 두경부, 항문, 사타구니 등 침범하지 않는 곳도 있다.

다른 무엇보다 두경부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나 이비인

후과 진료를 통해 안신경이나 청신경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방치할 경우 시력이나 청력 혹은 평행기관 손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개 50~60대 이상의 연령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히 7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이 남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야근이나 육아나 집안일로 인한 피로라든지 심지어 시험 스트레스 등으로도 젊은 층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대상포진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포 발생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가 투여돼야 함은 물론이고 통증에 대해서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대상포진 시 통증은 바이러스 증식하면서 신경절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통증을 한 달이나 두 달 이상 방치하게 된다면 통증 회로가 몸에 각인돼 버리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

로 이행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진통제와 같은 약물치료는 물론이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항경련제 같은 전문 신경약이나 적극적인 신경치료 등을 동원해 통증 신호를 전달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통해 젊은 층의 경우라면 많은 경우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노령층에서도 합병증을 최소화하며 어느 정도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다.

만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남은 경우라도 몸 신경차단이나 교감 신경차단 혹은 박동성 고주파와 같은 개인별로 적절한 신경치료 방법이나 약물치료를 시도한다면 상당한 삶의 질의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이 개발돼 55세 이상의 연령에는 접종이 권장되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덥고 습한 날에서 선선한 날씨가 이행하는 요즘 일교차도 부쩍 커졌다. 이러한 시기에 감기와 더불어 조심해야 할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눈, 귀에 수포생겼다면 시력·청력 손상 여부 확인해야

### 국민에게 더 가까이,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아시나요?

### 기고



안유나  
도고선정파출소 순경

도와줄 것이다.

쉽게 풀어 이야기해 보자면 "특정 시간에 여기 순찰 좀 돌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지하철역·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아파트 개시관, 학교 등에 해당지역 상seite도를 비치해 지도에 희망하는 순찰장소와 시간을 스티커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에서는 순찰희망시간과 장소를 요청할 수 있는 순찰신문고'를 운영한다. 주민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별도 웹페이지(<http://patrol.police.go.kr>)를 9월 초에 열고, 스마트폰 국민 제보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 불안 신고를 하면 순찰희망시간·장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후 순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해당 장소와 시간대에 도보순찰과 순찰차 거점근무 등 가시적 순찰활동을 전개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체감안전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순찰 후 결과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여 주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주적으로 실시하며, 순찰효과를 피드백 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주민밀착형 탄력 순찰'은 경찰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없다면 무의미한 제도이다. 작은 관심이 모여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내가 참여하는 탄력순찰 다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

### 기고

## 나에겐 애견(愛犬), 남에겐 맹견(猛犬)



석정훈

이산경찰서 112화2팀장

을 즐기는 일이 많아지는데, 길을 걷다보면 개를 안고가거나 목줄을 하여 끌고 가는 남녀를 쉽게 볼 수 있다. 일명 개를 키우는 견주, 즉 애견인들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통계를 애견인구가 1,000만이라는 보도가 나올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듯 애견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애견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애견인에 대한 불만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견주의 잘못된 관리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개를 키우는 견주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자신이 관리하는 개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 목

줄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5호에 '사람이나 가족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서 그 개가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한 경우, 견주는 형법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과실치상죄'의 혐의로 형사입건되고, 아울러 자신의 개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두고 '개 목줄하나가 500만원'이라는 표현이 나올 법도 하다.

자신이 키우는 애견을 순견의 잘못된 선택으로 타인에게는 맹견이 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d-mail@h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사**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번호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매달내내 042)538-1602	광고신청내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즈니스

상담문의 041-736-7200  
학교 조형물 리모델링(보수, 도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kidp

KIBO  
벤처기업인증

All children are artists.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e he grows up. *Pablo picasso*

더 큰 사랑을

# 보다!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으로 넘치는 사제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공간 - 학교

학교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은 아이들의 생각을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실외공간으로 확대하여 자연공간과의 친화성을 높이고 미적 감수성, 창조성, 정서성을 배울 수 있으며 보다 넓게 인간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아실현과 협동 봉사 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조형물의 설치는 폭 넓은 생각과 시각적 재미를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학습의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작 품 명 사제상(특허등록)

작품크기 1250\*720\*2500

작품특징 사제상은 스승은 사랑으로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

30년 전통의 조형물 전문회사  
www.hd-space.com

학교조형물 대표브랜드

Artschool | LOVE  
Environmental sculpture

국내 유일 학교조형물 전문회사 (주)현대공간조형이 사랑으로 만듭니다

- 30년 역사와 전통의 환경조형물 전문업체의 품격
- 새로운 공법특허 제작공법으로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
- 최고의 작가, 최고의 작품의 예술성이 높은 조형물
-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조형물

- |        |               |           |     |
|--------|---------------|-----------|-----|
| 도원초등학교 | 죽림초, 죽림초, 죽림초 | 연봉초등학교    | 사제상 |
| 권양초등학교 | 가곡초           | 월명초등학교    | 동상  |
| 도당초등학교 | 유곡            | 속초삼거리 유곡초 | 사제상 |
| 나래초등학교 | 사제상           | 석성초등학교    | 가곡초 |
| 석양초등학교 | 사제상, 가곡초, 가곡초 |           |     |

조형물 / 조형사상물 전문기업 (주)현대공간조형

조형물 전문상담  
041.733.9558

www.hd-space.com